

아태 마스터스 성공 활땀 공조

전북도-대회 조직위원회

실국별 협업과제 보고회

운영 등 56개 과제 발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 대회 조직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31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실국별 협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대회 홍보, 교통·숙박, 안전, 관광, 도민참여 등 8개 분야 56개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북도와 조직위는 ▲대회 범업을 위한 홍보강화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 환자 의료대응체계 강화 ▲글로벌 식품접객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조직위, 시군, 민간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도내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순환관광버스 확대, 인근 관광

지 연계, 전북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에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기간 동안 우리 도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전북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와 전북도가 원팀이 돼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서, 전 세계 국가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품새 경기 현장 찾은 오응환 이사장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제15회 스포스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중 태권도 품새 경기가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장을 찾아 참가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 품새 종목은 이번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31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실국별 협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 도청서 '민속경기 한마당'

전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통종목 시연·놀이 체험 등

전북체육회는 오는 13일 도청 일원에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속경기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속경기를 체험하고 참여할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 건전한 놀이습관 및 민속경기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에

선정 돼 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날 펼쳐지는 행사에는 ▲전통종목(줄넘기, 제기차기 등) 시연 ▲전통놀이 체험(투호, 고리걸기, 윷놀이,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등) ▲명탕 운동회(바터트리기, 굴렁쇠굴리기) 등이 있다.

또한 한복체험과 전통 악기 체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시단체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참가자들은 출입명부작성과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장은성기자

무주 태권도 '전국 최고 수준'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과 성인 태권도 선수들이 각종 국내 및 전북대회에 출전해 상 위권을 수상하면서 태권도성지 무주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무주 학생태권도시범단을 비롯한 성인 태권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셈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최효영 학생(무주중)이 체공회전 격파에서 1위를, 이재연 학생(설천고)이 체공 단단계 격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최효영 선수는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고공 발차기 1위에 올랐다.

각종 국내·도내 경기서 최고기량 선보여

최효영, 한체대 총장배서 체공회전 격파 1위

박해성·엄광복·임오름, 도민체전 성적 우수

또 최 선수는 자유형 부문 점수까지 합산해 개인종합우승을, 이재연 선수는 남자 고등부 고공발차기 부문 1위에 올라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태권도 분야에서는 박해성 선수(품새, 30세 이하)가 2위를, 엄광복 선수(품새 60세 이하)가 3위를, 임오름 선수(겨루기 +87kg)가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 성지 무주군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태권도 성지 위상에 걸맞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수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전 국민 태권도 보급과 확산을 위해 태권도 활성화 사업(5억3,0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 태권도 학생 및 어르신 태권도시범단 지원, 학교 선수부 육성, 관내 13개교에 대한 태권도 지도자 수당과 수련회생 도복 및 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과 성인 태권도 선수들이 각종 국내 및 전북대회에 출전해 상 위권을 수상하면서 태권도성지 무주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격파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